

‘新성장동력’ OTC 화장품… K뷰티, 美 소비자 ‘정조준’

(일반의약품)

씨티케이, 美 현지에서 생산기지 마련 이미 FDA 감사 완료하고 인증 갖춰 선진뷰티사이언스, 장항공장 부지 내 180억 규모 OTC 전용 공장 건설 코스메카코리아, 잉글우드랩 인수 제품 안전성·지속가능성 집중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화장품 업계가 사업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이미지.

K뷰티가 일반의약품(OTC) 화장품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플랫폼 기업 씨티케이(CS)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품 및 일반의약품(OTC)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

씨티케이는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화장품 및 일반의약품 제조법인인 인수를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 씨티케이 유에스에이 홀딩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 규모는 총 약 280억원 수준이다.

씨티케이는 미국 제조 공장 인수를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K뷰티의 성장세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수가 포함된 색조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OTC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지정된 인증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씨티케이(CS)는 화장품 브랜드사에는 OTC 규제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국내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회사에는 OTC 전문 위탁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케이가 이번에 인수하는 OTC 제조법인인 이미 미국 식품의약품(FDA) 감사를 완료하고 관련 인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케이(CS)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안으로 해당 시설을 OT

C 전문 공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티케이(CS)는 고객사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관세 부담,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전략도 펼친다. 씨티케이 측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무역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북미 현지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해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혀 K뷰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원료 제조 전문 기업 선진뷰티사이언스도 OTC 화장품 사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현재 충남 장항에 위치한 장항공장 부지 내에 해당 사업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오는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같은 해 4월 내 미국 FDA에 OTC 제조사로 등록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생산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사의 화장품 소재

까지 활용하면 이익률 등 수익성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도 OTC 화장품 사업으로 실적 성장을 노리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일찍이 지난 2018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잉글우드랩을 인수했다. 잉글우드랩은 OTC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의 선커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OTC 화장품인 만큼, 제품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대형 유통사인 세포라, 알타 뷰티 등의 마케팅 기준까지 준수해 미국 소비자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잉글우드랩 측의 설명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연결 매출 5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연결 매출 4707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대웅바이오 ‘베아셉트’, 세브란스병원 입성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올해 베아셉트 처방액, 314억 전망 현재 연평균 17% 성장률 기록 국내 4대 대형병원서 처방 가능

대웅바이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베아셉트(성분명: 도네페질 염산염)’가 세브란스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베아셉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개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및 이상행동 증상 개선을 위해 경증부터 중증 환자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제형, 경제적 약가, 정제 5mg 분할선 및 액제 제형 차별화 등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대웅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베아셉트정 5mg’ 정제는 분할선이

설계돼 2.5mg의 저함량 복용이 필요한 초기 치매환자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다. 정확한 분할 조제를 통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베아셉트액’은 연하곤란 및 노인 환자 등 정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의 복용순응도 개선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실제로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시된 베아셉트는 가파른 처방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베아셉트 처방액은 274억원으로 지난 2020년 168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현재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처방액은 3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과로 베아셉트는 삼성서울병

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까지 국내 4대 대형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28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326개의 종합병원 및 주요 병원에서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베아셉트를 비롯해 뇌 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성분명: 폴린 알포세레이트) 등을 통해 국내 중추신경계(CNS)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리아타민의 경우, 국내 폴린알포세레이트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리아타민 처방 실적은 지난 2023년 1545억원으로 동일 성분 제품 중 처방 규모가 가장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호텔신라, 미래 지속성장 위한 임원인사 실시

김준환 부사장 등 승진



김준환 신임 부사장 안재호 신임 상무 윤재필 신임 상무

호텔신라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 지속 성장과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탁월한 성과와 핵심역량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는 게 호텔 신라 측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이번 인사를 통해 김준환 전 상무가 호텔신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준환 신임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에서 호텔신라로 전입한 이후, 2015년 면세(TR) 부문 지원팀 재무그룹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이어 2019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안재호, 윤재필 등 총 2명이 신임 상무에 이름을 올렸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하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롯데호텔앤리조트 ‘보석의 예술’ 전시 연계 숙박상품 선보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세계적인 보석 수집가 ‘카즈미 아리카와’의 보석 전시와 연계한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보석의 예술’ 전시에서는 카즈미 아리카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모아온 진귀한 보석과 보석 장식품 총 2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이 전시와 연계한 숙박 상품 ‘보석의 예술 워드 롯데호텔앤리조트’를 시그니엘 서울, 롯데호텔 서울 등 국내 8개 체인호텔에서 판매한다. /안재선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中에 NDA 제출

(신약허가신청)

中, 약 1000만명의 뇌전증 환자

SK바이오팜은 글로벌 투자사 6D 캐피탈과 설립한 합작법인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접판매 매출은 올해 2분기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7.7% 커져 113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신약허가를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은 약 1000만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뇌전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마일스톤 기술료도 수령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마일스톤 기술료는 1500만달러(약 210억원)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건강, 다이소 뷰티브랜드 ‘클리덤’ 공개

저분자 콜라겐 기반 스킨케어 제품

종근당건강이 오는 5일부터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피부 고민 맞춤형 브랜드 ‘클리덤’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종근당건강은 클리덤을 통해 ‘저분자 콜라겐’ 기반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클리덤은 피부 탄력, 보습, 주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종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실타레 크림’은 저분자 콜라겐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달팽이점액여과물 등을 함유하고 있다.

실타레처럼 쪽쪽 늘어나는 제형이 제품 주요 성분과 피부의 밀착력을 높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실타레 크림과 함께 사용 가능한 ‘클

리덤 저분자 콜라겐 미스트 앰플’은 콜라겐 앰플층과 오일층이 8대 2 비율을 이루고 있는 제품이다. 수분 공급과 함께 유수분 균형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종근당건강은 기존 다이소 뷰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제품도 출시한다.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아이 마사지 앰플’은 360도 회전하는 눈가 전용 마사지를 탑재한 제품이다.

종근당건강은 입술 메이크업 제품으로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랩스 립세럼’도 내놓는다. 총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종근당건강은 ‘클리덤’을 다이소 전용 브랜드로 기획한 만큼, 고기능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가성비 중심의 소비 유행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